

'20만전자'·'100만닉스' 달성...코스피 '육천피' 목전

美관세 불안에도 거침없는 질주 '5969.64' 기관 2조원대 순매수...코스닥도 반등 성공

코스피가 24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고점 경신에 '육천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p(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7.39p(0.13%) 상승한 5853.48에 시작해 이내 하락 전환해 5775.61까지 밀렸다. 그러나 이후 반등에 성공한 뒤 오후를 빠르게 확대했다. 미국 상호관세 논란에 하루 종일 '닐뮈기장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주가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원, 100만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3.63% 오른 20만원, SK하이닉스는 5.68% 뛴 100만5000원에 끝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2866억원, 1965억원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2조374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581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1% 넘게 밀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기습 인상하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쌓인 결과다. AI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잠식할 것이라는 공포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1.91p(1.66%) 떨어진 4만8804.0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1.76p(1.04%) 하락한 6837.75, 나스닥종합지수는 258.80p(1.13%) 내린 2만2627.2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01p(1.13%) 상승한 1165.0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7.77p(0.67%) 오른 1159.76으로 출발한 후 하락 전환해 1146.22까지 내려갔다 반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40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1억원, 157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7324억원, 13조2828억원에 집계됐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24일 오후 서울 서울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가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55p(2.11%) 오른 5969.64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01p(1.13%) 오른 1165.00로 마감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전남 소비심리 개선...집값 기대심리는 급락

CCSI '115.7' 7개월 연속 전국평균 상회 부동산 위축에 주택가격전망지수 25p ↓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가 뚜렷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기준치를 밑도는 부진을 보였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2026년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5.7로 지난달보다 3.7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장기 평균보다 경제 상황이 낙

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 113.6을 기록하면서 당시 전국 평균(111.2) 넘어섰다. 이후 7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7로 지난달보다 1p 상승하고 생활형편전망지수는 103으로 4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5)는 전월보다 4p 상승하고 소비자출전망지수(115)는 전월과 동일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100)는 6p, 향후경기전망지수(108)는 2p 각각 올랐다. 취업기회전망지수(101)는 6p 상승하고 금리전망지수(104)는 2p 올랐다. 하지만 물가수준전망지수(135)는 1p 하락하고 임금전망지수도(121)로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90)의 경우는 25p 폭락하면서 지난 8월 이후 100을 넘었던 지수가 다시 100 이하로 내려갔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4일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영구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광주은행,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4일 광주시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영구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5000만원 출원...5.3% 이차보전 지원 저신용·저소득 대상 서민금융대출도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별도로 출원하며,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8억 5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북구는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최장 5년이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 저

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출세II)을 제공하며, 북구는 1년간 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지원금액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총 3억3000만원을 특별연계 약 9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포용금융센터를 거점으로 최근 5년간 1000여건의 무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민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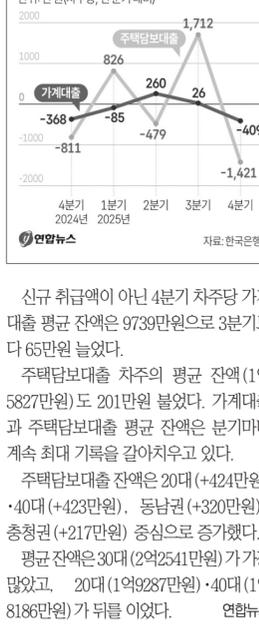
부동산 규제에 신규 주담대 감소

작년 4분기 평균 2억1000만원 1421만원 ↓

지난해 4분기(10~12월) 여러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대출자가 새로 받는 가계대출 규모가 소폭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전 분기 대비 -368만원)와 지난해 1분기(-85만원) 뒷걸음쳤다가 2분기(+260만원) 다시 늘었지만, 부동산 규제로 3분기(26만원) 증가 폭이 축소되고 4분기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40.9%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신규 취급액 평균(2억1286만원)이 전 분기보다 1421만원 급감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감소 폭이 3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

이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중은 30대(37.1%)·40대(29.5%)·50대(18.3%)가 1~3위를 차지했다. 지역 중에서는 수도권(-3714만원) 주택담보대출 감소세가 뚜렷했고, 동남권(+2577만원)·강원제주권(+2442만원)·대구경북권(+2188만원) 등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민속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증가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대출 회수 '속도' 금융위, 3차 회의 소집



신규 취급액이 아닌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739만원으로 3분기보다 65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1억 5827만원)도 201만원 늘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액은 분기마다 계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대(+424만원)·40대(+423만원), 동남권(+320만원)·충청권(+217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평균 잔액은 30대(2억2541만원)가 가장 많았고, 20대(1억9287만원)·40대(1억 8186만원)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불허' 원칙을 세운 가운데 규제 대상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살펴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설계 방향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려면 기존 자료보다 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유한 통계를 재분류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별도 실무 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출 방식과 분류 기준을 논의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DB) 조회로는 파악이 어려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 등을 재검토해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최초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 시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대출 취급에 금융사가 더 많은 자본을 쏟도록 하는 자본규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추가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내기업 경기전망 4년만에 긍정 전환

제조업 수출 견인...BSI 한달새 17.8p 올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의 선전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경기 전망치는 수출 외에도 내수와 투자, 고용 등 대부분 부문에서 전월 대비 오르면서 기업 심리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

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2022년 4월(99.1)부터 올해 2월(93.9)까지 47개월간 이어진 부진 전망

이 멈춘 것이다. 모처럼 나타난 긍정 전망은 전월과 비교해 급등한 제조업 부문의 BSI 수치에 힘입었다. 3월 제조업 BSI는 105.9로, 2월(88.1)보다 17.8p 상승하며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기준선을 웃돌아 긍정으로 돌아섰다. 이번 수치는 2021년 5월(108.6)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는 6개 업종이 기준선을 넘었고, 3개 업종은 기준선에 걸렸다. 부정 전망을 보인 업종은 '식품(93.9)까지 47개월간 이어진 부진 전망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예금주 압류 방지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2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 좌만 개설할 수 있다. 월 누적 입금 한도와 계좌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

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소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